

광주 고용률 하락폭 '전국 최고'...지역 '고용한파'

호남통계청, 1월 고용동향

광주 취업자수 2.2%·고용률 1.2%p ↓
전남 실업률 5.1%, 전년비 1.1%p ↑
실업률 2위...여성 실업률 전국 1위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증가하는 등 새해 첫 달부터 지역 고용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2%,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1.2%p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을 보였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15세이상인구는 12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0.2%)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7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000명(-1.8%)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000명(2.5%) 증가했다.

취업자 및 고용률을 살펴보면 광주지역 15세이상 취업자는 75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7000명(-2.2%) 감소했고, 이 중 남자는 42만5000명

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2.3%), 여자는 33만400명으로 7000명(-2.1%) 각각 감소했다. 함께 취업자수 기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광주시(-2.2%)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서울시(-1.8%), 대구시(-1.5%)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률 역시 59.4%로 전년동월대비 1.2%p 떨어지며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1.0%p), 대구시(-0.9%p)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 성별별 고용률을 보면 남자는 68.0%로 전년동월대비 1.5%p, 여자는 51.2%로 0.9%p 각각 하락했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광공업(4000명, 3.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00명, 0.5%)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명, -6.4%),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00명, -5.4%), 농림어업(-4000명, -19.7%)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4000명(2.9%)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5000명(-14.8%), 상용근로자는 2000명(-0.4%)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2000명(-7.4%), 무급가족종사자는 2000명(-13.1%)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 동향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8.2%) 증가했고, 성별로 보면 여자는 1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16.1%), 남자는 1만6000명으로 0.6% 각각 증가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3%p, 성별로 보면 여자는 4.5%로 전년동월대비 0.6%p, 남자는 3.6%로 0.1%p 각각 상승했다.

지난달 전남지역 15세이상인구는 151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0.2%)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10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0.3%)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6.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3%) 감소했다.

취업자 및 고용률을 살펴보면 15세이상 취업자는 9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0.8%)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0.2%), 여자는 41만4000명으로 7000명(-1.6%)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은 63.4%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5%로 전년동월대비 0.4%p, 여자는 55.1%로 0.4%p 각각 하락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

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8000명, 4.5%), 건설업(6000명, 7.8%),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 3.8%)에서 증가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2000명, -6.3%), 농림어업(-3000명, -1.5%)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2000명(1.5%) 증가했으나, 상용근로자는 3만2000명(-7.5%), 일용근로자는 2000명(-5.0%)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4000명(21.7%), 자영업자는 9000명(3.1%) 각각 증가했다.

실업자 동향을 살펴보면 전남지역 실업자는 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000명(27.0%) 증가했고, 성별로 보면 여자는 3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25.5%), 남자는 1만9000명으로 4000명(28.9%) 각각 증가했다.

실업률은 5.1%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으며, 성별로 보면 여자는 7.3%로 전년동월대비 1.5%p, 남자는 3.4%로 0.8%p 각각 상승했다. 전남지역 실업률(5.1%)은 전국에서 강원도(7.3%)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 실업률(7.3%)은 강원도와 함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편안한 신발 만나보세요” 광주신세계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플 레이 스팟(구 신관)의 신발 편집매장인 ‘세이프 힐즈’에서 가벼운 산책에 좋은 ‘르무통’의 신발을 제안한다. 르무통은 프랑스로 양을 뜻하며, ‘벗고 싶지 않은 편안함’을 모토로 만들어져 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아 오래 신어도 편한 신발로 유명하다. 특히 메리노 울 원단을 사용해 핸드폰보다 가벼운 무게의 초경량화로 신고 벗기 편리하며 착화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르무통의 대표 제품은 ‘메이트 발 편한 메리노 울 운동화’, ‘포레스트 발 편한 메리노 울 운동화’ 각 13만4100원, ‘스위트 발편한 올 플랫 메리제인 슈즈’ 12만5100원 등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소진공 광주본부, 소상공인 가정간편식 개발 지원

지역 음식점 대표메뉴 제조·유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 본부는 지난 14일 ㈜현대그린푸드와 ‘소상공인 HMR(가정간편식) 상품 개발 등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호남지역 소재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대표메뉴를 상시 유통가능한 가정간편식(HMR) 형태로 제조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우수한 음식점업 소상공인 발굴 △대표메뉴 가정간편식(HMR) 제조·유통 △기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동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박진희 소진공 광주호남지역본부장은 “광주호남지역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판로 개척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모집해 대표메뉴들의 가정간편식 개발과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제 1159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9 27 28 38 39	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2억8485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477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31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전남신보-순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출연 협약

순천시 3억 출연...총 30억 지원

전남신보보증재단(전남신보)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순천시와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3억원 출연하며, 전남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출연금 1억5000만원 보다 두 배 증가

한 규모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보증은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순천시자금과 연계해 연 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인당 연간 15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근전남신보 이사장은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순천시와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신보는 경기침체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다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000억 원 증액한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 탈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나다운 기자**

광주상의,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변화 교육’ 개최

3월 6일 수출기업 임직원 대상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 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3월 6일 2강 의실에서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변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무릅사 관세사무소의 정재환 관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그에 따른 관세정책의 변화 △환율 변동성과 관세정책의 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 수강 시 지역 수출 업무 담당자들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환율 변동성과 관세정책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관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계속해서 관련 교육 및 정보 등을 제공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교육 외에도 컨설팅,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은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관련 상담 및 무역증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062-350-5888)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20일까지 ‘삼성물산 고객 초대전’

광주신세계는 오는 20일까지 ‘빈플레이디스’, ‘메종키즈네’ 등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을 할인 판매하는 삼성물산 고객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15개 브랜드가 참여해 금액 대별 할인 프로모션을 선사한다.

광주신세계 삼성물산 고객초대전은 본관 4층과 6층, 7층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4층에서 고객 초대전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빈플레이디스’이다. 지난 2001년 론칭 이후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

일을 담은 브랜드로 자리 잡은 빈플레이디스는 올해 SS신상품 중 폴리 혼방 7부 소매 셔츠 원피스 등을 선보인다. 7부 소매를 가진 원피스로 깔끔한 셔츠형 디자인 덕분에 여러 상황에 연출하기 좋다. 빈플레이디스는 30/60/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 각각 3/6/10만원 금액 할인을 제공한다.

파리와 일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컨템포러리 브랜드 ‘메종키즈네’ 역시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메종키즈네는 라운

드넥 카디건을 추천한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라운드넥 카디건은 부드러운 울 소재로 제작돼 사계절 내내 데일리 웨어로 착용하기 좋다. 60/100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들은 각각 3/5만원 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층에서는 ‘피어리 남성’이 대표적이다. 혁신적인 소재로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대표적인 컨템포러리 브랜드인 피어리는 고리스 카라티 등을 준비했다. 카라티라 캐주얼은 물론 포멀한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60/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 각각 3/5만원 금액 할인을 제공한다. **나다운 기자**